



비절개법 모발이식

흉터 없어 짧은 헤어스타일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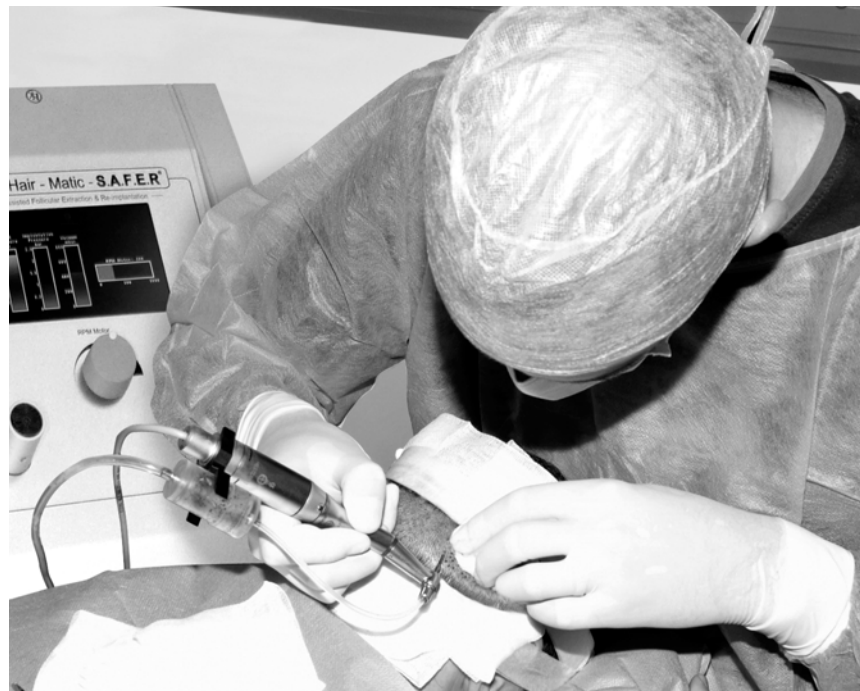
모발이식이란 탈모가 진행이 되어도 빠지지 않는 자신의 머리 뒤쪽 모발을 뽑아 이식하는 방법이다. 1930년대 일본인 피부전문인 오쿠다가 화상환자의 치료목적에 편지를 이용해 시술한 이후, 1950년대 초 미국 Dr. Orentreich는 단일모 모발이식수술법에 대한 원리를 발견해 논문을 발표했다. 2002년 라스만에 의해 비절개 모낭단위 적출법이 소개된 이후 더욱 정교해지면서 발전해 왔다.

최근 국제모발이식학회(ISHRS)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모발이식은 절개법이 80%정도, 비절개법이 20%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비절개법 수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모낭단위(Follicular Units)이식이란?
뒤쪽에 나는 머리카락은 모낭단위(Follicular Units)라는 묶음으로 몇 개의 머리카락이 뭉쳐서 자라게 되는데, 성인 두피의 1개의 모낭에는 1~4개의 굵게 완전한 자란 머리카락이 뭉쳐서 자란다. 즉 모낭단위 1~3개의 모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모발이식 수술의 일반화된 방법은 모낭단위로 채취하고 이식해야 원래의 모발 분포상태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모양인은 평균적으로 두피 면적 mm² 당 모낭이 0.48~0.75개 정도로 4300~8500개 정도의 이식 가능량을 가지고 있다. 이중 비절개 모발이식을 통해 채취가 가능한 양은 약 3분의 1 정도이다.
◇모발이식 절개법과 비절개법의 차이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절개법 모발이식은 그 특성상 뒷머리에서 두피를 채취하기 때문에 뒷머리에 가느다란 줄 모양의 흉터가 남는다. 또한 두피를 채취한 부위에 통증이나 감각이상과 같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절개한 부위의 주위 모발이 까끌까끌하게 탈락되는 부분이 생긴다. 또 절개할 때 동맥으로부터 큰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절개부위가 봉합이 되지 않는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여러 번 시술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반면 비절개 모발이식은 모낭을 하나하나 채취하는데, SAFER 레이저를 이용해 모낭 단위로 하나씩 채취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껌뻐할 필요가 없고, 수술흉터도 남지 않는다. 절개



신삼식 뷰티스틱은피부과 원장이 비절개 모발이식을 위해 SAFER레이저를 이용, 모낭을 채취하고 있다.

모낭 채취 이식... 시술시간 길지만 섬세하고 안전

'절개법' 흉터·통증 등 후유증... 여러번 시술 안돼

수술 후에 두피가 딱딱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절개법이 불가능하므로 이때는 비절개법을 해야 한다. 또한 모낭을 한 부위가 아닌 다양한 부위에서 골고루 채취할 수 있어 모낭 채취로 인한 흔적이 전혀 없다. 특히 비절개법은 적은 수의 모발이식 이 필요한 수술에 훨씬 편하다.

이와 함께 적은 수의 모발을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턱수염이나 이마 헤어라인을 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흉터나 백반증 부위에도 이식을 함으로써 치료 및 미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비절개 모발이식의 단점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모낭을 하나하나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련 레이저기가 고가인데다 유지비가 더 들어 시술비가 좀 더 비싸다.

◇비절개 모발이식이 적합한 경우
비절개법은 짧은 머리의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뒤통수에 일자로 긴 흉터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극소 부위의 세밀하고 정교한 이식

이 필요한 경우에도 알맞다. 특히 25세 이하인 조기탈모의 경우 M자형 탈모가 많은데, 이런 남성이 M자형 헤어라인일 경우 처음부터 절개방식을 하기보다는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헤어라인을 살릴 수 있는 꼭 필요한 만큼만 채취해 이식할 때 좋다.

특히 유전적으로 가족력 약 5~10년 뒤에 급격한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차후 절개 예정 핵심부의 모발을 보존해 차후에도 2차 모발이식이 가능하게끔 비절개 모발이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모발이식을 바라는 환자에게는 절개법과 비절개법을 동시에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즉 절개부위에서 모발을 채취하면서 동시에 절개부위 위, 아래 부위에서 SAFER레이저를 이용해 모낭을 채취할 수 있어서 모발이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광주 뷰티스틱은피부과 신삼식〉
/정리=채희종기자 chae@kwXingju.co.kr

우리나라 암 1위 '갑상선 암' 젊은 여성 급증

조기검진·치료 땀 완치율 95%... 흉터 없는 다빈치로봇수술 각광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갑상선 암으로 수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갑상선암이 위, 대장, 폐, 간암(순서대로 2위-5위)을 제치고 우리나라 암 1위로 등극했다.

갑상선은 목 앞부분에 자리잡고 있으며 음식을 통해 섭취한 요오드로 갑상선호르몬을 만든다. 갑상선호르몬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호르몬인데 신진대사를 촉진해 뇌, 심장, 간 등 중요한 신체기능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한다.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갑상선에 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어릴 때 방사선에 과다 노출되면 갑상선 암 발생이 높으며,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갑상선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갑상선암은 대부분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며 해당 유전자로는 Braf, RET/PTC 등이 있다. 또한 갑상선암 환자의 80~90%가 여성인데 여성호르몬의 영향이 갑상선암을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갑상선초음파를 해보면 2~4명에 한명은 1~2cm 미만의 작은 혹들이 우연히 발견된다. 이중 5%만이 암이므로 특별한 조치 없이 6개월~1년마다 초음파를 시행해 혹의 크기를 관찰해도 되지만 크기가 적더라도 초음파상 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세침 흡입검사로 확인해야 하므로 전문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다.

갑상선암은 매우 순한 암이어서 수술로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동위원소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특히 젊은 여성에 흔하다보니 수술 흉터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시경적 갑상선 절제술이나 목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 다빈치로봇수술법을 선호하기도 한다.

다행히 갑상선암은 수술 후 1~2주 이내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암의 진행 속도도 느리며 완치율이 95%에 육박해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부담없이(?) '암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간혹 갑상선암 수술 후에 미역이나 다시마 등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며, 동위원소 치료기간을 제외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식



식은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예방법은 없지만 주기적인 갑상선 초음파검사로 조기 발견하는게 최선책이며, 특히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과 관련있는 RET유전자의 돌연변이 검사를 초음파와 함께 시행하면 더 효과적이다.
〈태양21내과 당뇨-갑상선센터 연태영 원장〉
/정리=채희종기자 chae@kwXingju.co.kr

조선대병원, 양변기 안전손잡이 지원

장애인 화장실 낙상위험 예방... 11명 선정 설치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민영돈)이 가정의 달을 맞아 치매 및 노년층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양변기 안전손잡이 설치를 실시했다.

조선대병원은 등록장애인 중 보행이 어려운 화장실 양변기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양변기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11명을 선정하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오는 6월 결정된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선대병원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욕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를 향

상시킬 예정이며, 양변기 안전손잡이를 통해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낙상 위험을 예방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조선대병원 장애인보조기구 사재관리센터 홈페이지(http://rtc.chosun.ac.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조선대병원 사재관리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062-220-3777~8),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사재관리센터(062-220-3777)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임신42주 이후 출생 아이 과잉행동 확률 높다

영양소·산소 공급 원활하지 않아 신체·감정·주의력 비정상적

임신 42주를 넘겨 출산한 아이는 나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같은 문제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메디칼센터 아동-사춘기외과의 한 마룬(Hanan El Marroun) 박사가 5145명의 아기를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임신기간과 장기적인 행동-감정

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이 최근 보도했다.

임신 42주를 넘겨 출생한 아이는 임신기간인 40주 부근에 태어난 아이에 비해 충동, 불안, 과잉행동 같은 행동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거의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룬 박사는 밝혔다. 이 아이들의 행동장애 발생

률은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들과 마찬가지로 4%로 나타났다. 만기출산 아이들은 2%였다.

조산아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 결과는 만기를 넘겨 너무 늦게 태어나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임신 40주가 넘으면 태아가 그만큼 더 자라 커지는데 태반은 그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신체-감정-행동 발달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마룬 박사는 설명했다. 따라서 임신 40-41주 사이에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 분만을 마룬 박사는 권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Dawa Auction' (다와옥션)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search bar.

Advertisement for 'Dawa Digital Media City' (다와디지털미디어시티)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search bar.

Advertisement for 'Ocheon Auction' (오천경매)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search bar.

Advertisement for 'Daedong Real Estate' (대인동상일부동산)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search bar.

Advertisement for 'Daejeon Real Estate' (대전교환전)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search bar.

Advertisement for 'Cheongcheol Real Estate'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search bar.